

<b>보도 일시</b> (인터넷) 2023.1.25.(수) 12:00 (지 면) 2023.1.26.(목) 조간	<b>배포 일시</b> 2023. 1. 25.(수) 8:30
<b>담당 부서</b>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	<b>책임자</b> 과 장 나현주 (044-203-6603) 사무관 이솔잎 (044-203-6606)
	<b>담당자</b> 교육연구관 최소영 (044-203-6610) 교육연구사 전보현 (044-203-6611)

**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**  
 -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5개 선정  
 - 인천, 대전, 경기, 전남, 경북 등 5개 지역에서 200개교 운영

**주요 내용**

- 2023년 약 200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 지원
- 5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200개교 대상 초1 입학초기 ‘에듀케어’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, 수요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
  - 토요방과후(경기·경북), 찾아가는 마을방과후(인천), 과학문화AISW 체험버스(대전),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(전남)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
  - ‘아침돌봄’ 도입(인천, 대전, 경기, 경북), 필요한 날 이용 가능한 ‘일시돌봄’ 서비스(경기·대전·경북·전남) 및 입출입 학부모 안내서비스(인천·대전) 제공
- 시범운영 외의 시도교육청에도 저녁돌봄 식·간식비, 프로그램비 등 늘봄학교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 지원
  -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약 100억 원 지원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)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선정 결과를 1월 26일(목) 발표한다.
  - 지난 「늘봄학교 추진방안」 발표(1.9.) 이후 시범교육청 공모기간(1.11.~1.18.)을 거쳐 인천, 대전, 경기, 전남,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하였다.
  - 그간 새 학기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교육부-시도교육청 협의체에서 시범교육청 주요 운영 내용과 2023년 추진방향 등을 지속 논의하는 등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.

- 5개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인천교육청은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,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, 악기교실,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, 지정교실을 개방하여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‘아침이 행복한 학교’를 운영한다.
    - 관내 전체 초등학교의 30%인 80개교에는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 1차 서류심사,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업무도 지원하여 단위학교의 업무경감도 지원할 예정이다.
  - 대전교육청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인 ‘새봄교실’을 운영하고, 해당 학급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하여 교실 환경관리 부담도 덜 예정이다.
    - 시범 운영학교 20개교에는 ‘새봄교실’을 1학기 동안 운영하고, 5~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, 코딩, 로봇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후 학교를 무상으로 운영한다.
  - 경기교육청은 약 80개교를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, 희망하는 학교는 1학기 동안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.
    - 희망하는 43개 초등학교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(에듀테크) 기반의 교과 콘텐츠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여 학력 향상도 지원하는 ‘하나더 프로그램’도 운영한다.
  - 전남교육청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 40개교를 대상으로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미래형·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, 학력격차 해소, 농어촌 특화(문화예술),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    -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학교 내 유휴교실, 마을학교, 거점 돌봄센터 등 다양한 늘봄공간을 마련하고 교원 연구공간도 확충하며, 마을학교·지역교육재단·지자체 등과 협력하는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.
  - 경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주도 1학기 1프로젝트를 지원하고,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등 운영시간을 다양화하여 정규수업과 방과후 연계와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.

- 40개교에서는 초1 에듀케어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침돌봄 시간편식도 제공하여 이른 아침 맞벌이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.
-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하고, 방과 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시범교육청을 포함한 17개 교육청에 지방공무원 120여 명을 배치하여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.
  - 한편, 2023년 시범교육청이 아닌 시도교육청에도 늘봄학교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운영체제 구축,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, 저녁돌봄 식·간식비, 안전관리비 등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위해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.
  -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, 향후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2024년 단계적 확대 추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.
-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이번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지역이 향후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, 교육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 할 계획이며,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성공 모델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	책임자	과 장 나현주 (044-203-6603)
		담당자	사무관 이솔잎 (044-203-6606)
		담당자	교육연구관 최소영 (044-203-6610)
		담당자	교육연구사 전보현 (044-203-6611)

